

大學生의 自我正體感 地位와 親密性 地位間의 正準相關分析

박 아 청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대구에 거주하는 남여 대학생 356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아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 간의 상관을 정준상관분석을 통해 알아 본 결과,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에서 확산요인이 낮을수록 친밀성 지위의 자율성 요인이 증가하며,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에서 조기완료 요인이 증가할수록 친밀성 지위의 요인이 낮아지고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에서 성취수준 요인이 증가할수록 친밀성 지위의 개방성 요인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남학생들에게서는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에서 확산 요인이 낮을수록 친밀성 지위의 자율성 요인이 증가하고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에서 모러토리움 요인이 증가할수록 친밀성 지위의 협동성 요인이 증가하며, 여학생들은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에서 성취수준 요인이 증가할수록 친밀성 지위의 개방성 요인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정체감 위기의 해결이 성숙한 친밀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아울러 정체감 형성을 어느 정도 형성한 대학생은 친밀성도 역시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밀성의 하위요인에서 성별차이를 보인 점에 대해서는 각 하위요인별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rikson(1968)은 청년기의 '정체감 대 정체감 확산'의 위기에 계속되는 중핵적인 심리사회적 위기를 '친밀성 대 고립'에 두고 있다. Erikson은 "친밀성 발달에 있어서의 정체감의 역할을 강조하고, 타자와의 진정한 제휴는 견고한 자기확정의 결과이기도 하다"(p. 121)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젊은이는 정체감 확립 후 스스로의 정체감을 타자의 정체감과 대치시킬 뿐만 아니라 융합시키는 것도 구한다고 한다.

Erikson은 친밀성을 "자기를 구체적인 제휴나 협력관계에 경도시켜서, 이를테면 그것이 유희적 회생이나 타협을 필요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향을 지속하는 윤리적 강도를 나타내는 능력" (1963, p. 263)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그는

친밀성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개방성, 개인적 자율성, 근접성, 협동성 등을 들고 있다. Erikson은 이 단계의 위기에 있어서의 부정적 해결을 고립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Erikson은 남자의 경우, 정체감 위기의 해결 후에 친밀성의 해결에 대처하나 여자의 경우에는 정체감의 위기와 친밀성 위기와의 해결이 병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20년동안 정체감의 검토는 Erikson의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한 연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박아청, 1992). 정체감 지위의 접근은 직업이나 가치관 등의 영역에 있어서 정체감 위기의 해결과정에 수반되는 위기와 경도의 심리 사회적인 두 개 기준의 조화에 의해 정체감 지위를 결정하

는 것이다.

Josselson(1973)은 사례적인 검토에 의해 바로 소 여자의 정체감 위기와 친밀성 위기와의 연관을 검토하고 여자는 정체감 형성의 과정과 친밀성 형성의 과정이 병행하고 있는 인상을 받는다고 했고, 또한 정체감의 강화와 친밀성의 심화와는 상호성이 있다고 했다.

Whitbourne 등(1982)의 대학 3·4학년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차를 중심으로 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와의 연관을 검토한 연구는 정체감 위기의 해결이 성숙된 친밀성의 달성과 관계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으나 이 관계가 여자보다 남자에 있어 현저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Erikson의 남녀 각각에게 가설된 관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와 같이 대체적으로 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와의 연관을 검토한 연구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있어서 현저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Erikson이 청년기의 발달과제로서 ‘정체감 (identity)의 형성’을 주창한 아래, 정체감의 점성적 발달에 관한 연구나 정체감 지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Erikson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체감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최근 수년간 수행되어 왔다(서봉연, 1988; 송설희, 1994). 그러나 성차를 중심으로 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와의 연관을 검토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다만 정체감과 친밀성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 연구(이경혜, 1991)가 있으나 방법론적으로 볼 때, 단순상관만을 실시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각 하위요인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정체감과 친밀성의 하위요인간의 구체적인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정체감뿐만 아니라 친밀성의 형성에 시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까지 이 방면의 연구를 살펴볼 때 아직까지 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 간의 상호관련성의 정도를 집합적으로 취급한 연구가 미비하다. 그러므로 성차를 중심으로 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와의 관련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정준상관분석법(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이들간의 관련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 정체감 지위분포의 하위요인들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친밀성 지위분포의 하위요인들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 정체감 지위의 하위요인과 친밀성 지위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성인 전기에 해당하는 대구시내 거주 대학생 35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응답에 대한 성실성, 신뢰성의 측면에서 평가 검토한 후 유효한 질문지 299매를 선정했다. 그리고 성차를 검토하기 위하여 남녀 각각 150명씩 29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는 자기평정에 의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표는 무또에 의해 작성된 면접지침을 참고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전체 49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구성내용을 보면 크게 가치(Value : V)영역과 직업(Occupation : O)영역에 대한 4개의 정체감 지위 특징을 표현한 각 5문항과 그 각 문장에 자신이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선택하는 문항 각 1

문항씩 모두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편의상 조사 I이라 부르기로 한다. 즉, 가치영역 질문항목 15문항, 직업영역 질문항목 12문항으로 구성된다. 여기까지를 조사 II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조사 I의 12문항과 조사 II의 37문항으로 전체 4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조사 I에서는 Cronbach $\alpha = .53$ 로 나타났으며, 조사 II에서는 $\alpha = .78$ 로 나타났다.

친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Orlofsky(1978)의 반구조화된 면접법과 Rosenthal 등(1981)의 EPST를 기초로 하여 제작된 것이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하위영역별로 Cronbach $\alpha = .88$ 로 나타났다. 타당도는 선행연구(류재동, 1990)에서 검증된 내용을 전문가 3명에게 영역정의와 문장을 제시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각 문항이 그 영역에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케 하는 내용타당도를 구하였다. 그 결과, 평가자간 합치도(P.)는 $r = .825$ 였으며, 내용타당도 지수(CVI)는 $r = .775$ 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자료처리 및 분석

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체감 지위의 하위 요인들과 친밀성 지위의 하위요인들간의 상관계수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두 변인군 간의 상호관련성의 정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Hotelling(1935)이 처음 개발한 분석으로 두 변인군 간의 관련성을 최대로 나타내어 설명하도록 선형 결합을 이용한 방법이다.

본 정준상관 분석에서는 첫째로 남, 여 전체를 뮤어서 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 간의 체계적 관련성을 찾아보고, 둘째로 남, 여 각기 독립적으로 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 간의 관련성을 분

석하였다.

결 과

1. 정체감 지위분포

성별에 따른 정체감 지위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한 결과는 표1과 같다.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정체감 지위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과 직업영역의 각 하위요인들 간에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정체감 지위분포의 하위요인들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을 기각하였다.

2. 친밀성 지위

성별에 따른 친밀성 지위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한 결과는 표1과 같다.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친밀성 지위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과 직업영역의 각 하위요인들 간에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친밀성 지위분포의 하위요인들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를 기각하였다. 앞에서 본 정체감 지위분포의 하위요인들에서 본 결과와 비슷하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3. 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 간의 관련성

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체감 지위의 하위요인들과 친밀성 지위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도출하였다.

표 1. 정체감요인과 친밀성요인들 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요인			전체	남	여	t	p
척도							
정체감	가치	성취수준	18.36(3.29)	18.24(3.20)	18.51(3.42)	-0.75	0.44
		모러토리움	10.97(2.83)	11.08(2.77)	10.84(2.91)	0.78	0.43
		조기완료	14.26(2.95)	14.20(2.75)	14.35(3.20)	-0.43	0.66
		확산	13.57(3.07)	13.50(2.94)	13.66(3.25)	-0.43	0.66
지위	직업	성취수준	13.48(3.52)	13.47(3.70)	13.49(3.29)	-0.11	0.90
		모러토리움	12.72(2.53)	12.75(2.48)	12.67(2.59)	0.26	0.79
		조기완료	11.98(3.54)	11.87(3.45)	12.13(3.67)	-0.63	0.52
		확산	10.33(3.03)	10.15(2.98)	10.57(3.10)	-1.18	0.24
친밀성지위	개방성		65.54(8.53)	65.04(9.10)	66.20(7.72)	-1.17	0.24
	자율성		73.44(8.18)	72.86(8.41)	74.20(7.84)	-1.40	0.16
	근접성		73.00(8.54)	72.32(7.80)	73.88(9.36)	-1.57	0.11
	협동성		72.57(8.00)	72.09(7.55)	73.20(8.54)	-1.14	0.24
계			n=299	n=169	n=130		

* ()는 sd임

나아가 두 변인군 간의 상호관련성의 정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한 것이 표2와 같다.

표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대상에 있어서는 정체감 지위의 8개의 하위요인과 친밀성 지위의 4개의 하위요인 간에는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전체분석

남, 여 구분없이 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 간

표 2. 전체분석에서 정체감과 친밀성 간의 상관계수

친밀성			개방성	자율성	근접성	협동성
정체감						
가치	성취수준	0.35*	0.25*	0.31*	0.27*	
		-0.19	-0.33*	-0.16	-0.18	
		0.16	0.11	0.31*	0.26*	
		-0.23*	-0.35*	-0.25*	-0.31*	
직업	성취수준	0.20*	0.17	0.18	0.21*	
		-0.03	-0.07	-0.04	-0.06	
		0.20*	0.11	0.24*	0.26*	
		-0.13	-0.30*	-0.17	-0.21*	

* p<.05

n=299

전체적으로 볼 때 정체감 지위의 하위요인과 친밀성 지위의 하위요인들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3을 수용한다고 볼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에서 성취수준 요인은 친밀성 요인들(개방성, 자율성, 근접성, 협동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러토리움 요인은 자율성 요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기완료 요인은 근접성 요인과 협동성 요인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확산 요인은 친밀성 전체요인들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다 세부적인 각 하위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체감 지위의 직업영역에서 성취수준 요인은 친밀성 지위의 개방성 요인과 협동성 요인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기완료 요인은 개방성 요인, 근접성 요인 및 협동성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확산 요인은 자율성 요인과 협동성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상관분석한 결과를 좀 더 단순화시키고, 심화분석하기 위하여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군과 도출된 정준함수들 간의 상관을 표3에 제시하였다.

표3에서 정준함수 Root(I)과 Root(II)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Root(III)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래서 정준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함수중 3개 만이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3.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체감 요인들과 친밀성 요인들 간의 정준상관분석

		정준함수	Root(I)	Root(II)	Root(III)	Root(IV)	
정체감	가치	성취수준	0.33*	0.24	0.89*	-0.60	
		모러토리움	-0.31*	0.44*	-0.07	0.34	
		조기완료	0.19	0.65*	-0.69*	-0.46	
		확산	-0.39*	0.17	0.30	-0.59	
지위	직업	성취수준	-0.05	-0.23	0.38*	0.52	
		모러토리움	0.04	0.04	-0.07	-0.19	
		조기완료	0.18	0.32*	-0.08	0.64	
		확산	-0.18	0.22	0.54	0.32	
친밀성지위		개방성	0.29	0.13	0.19*	0.12	
		자율성	0.45*	-1.17*	-0.26	-0.41	
		근접성	0.12	0.94*	-0.55	-1.25	
		협동성	0.33*	0.19	-0.23	1.53	
canonical correlation			0.44	0.31	0.16	0.13	
Eigenvalue			0.29	0.13	0.04	0.02	
<i>F</i>			4.39	2.85	1.74	1.36	
<i>df</i>			32	21	12	5	
Probability			0.001	0.001	0.05	0.23	

* 정준함수(Root)와 변수들간의 비교적 높은 상관을 표시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임

Root (I)은 상관계수가 $R_c = .44$ 이고 전체변량의 29% (Eigenvalue = 0.29)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에서 확산요인 (-0.39)과 모러토리움 요인 (-0.31)은 부적관계를 보여주었고 성취수준 요인 (0.33)과는 정적관계를 보여주었고, 친밀성 지위의 자율성 요인 (0.45)과 협동성 요인 (0.33)은 정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에서 확산요인 (정준적재치 = -0.39)이 낮을수록 친밀성 지위의 자율성 요인 (정준적재치 = 0.45)은 증가한다는 체계적인 관련성을 나타낸다.

Root (II)는 정준상관계수가 $R_c = 0.31$ 이고 전체변량의 13% (Eigenvalue = 0.13)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정체감 지위의 모러토리움 요인 (0.44), 조기완료 요인 (0.65), 그리고 직업영역에서 조기완료 요인 (0.32)과 정적관계를 보여주었고, 친밀성 지위의 자율성 요인 (-1.17)은 부적관계를 근접성 요인 (0.94)과는 정적관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에서 조기완료 요인 (정준적재치 = 0.65)이 증가할수록 친밀성 지위의 자율성 요인 (정준적재치 = -1.17)이 낮아진다는 체계적 관련성을 나타낸다.

Root (III)은 정준상관계수가 $R_c = 0.16$ 이고 전체변량의 4% (Eigenvalue = 0.04)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에서 성취수준 (0.89)과 정적관계를, 조기완료 요인 (-0.69)과는 부적관계를 보여주었고, 친밀성 지위의 개방성 요인 (1.19)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에서 성취수준 요인 (정준적재치 = 0.89)이 증가할수록 친밀성 지위의 개방성 요인 (정준적재치 = 1.19)도 증가하는 체계적 정적 관련성을 나타낸다.

2) 남자분석

전체대상자 중 남자만을 추출하여 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한 것이 표4와 같다.

위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남자에서는, 정체감 지위의 8개 하위요인과 친밀성 지위의 4개 하위요인 간에는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에서 성취수준 요인은 개방성 요인, 근접성 요인 및 협동성 요인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러토리움 요인은 자율성 요인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기완료 요인은 근접성 요인과 협동성 요인에서 정적 상관

표 4. 남자에서 정체감과 친밀성의 상관계수

정체감		친밀성			
		개방성	자율성	근접성	협동성
가치	성취수준	0.31*	0.19	0.28*	0.24*
	모러토리움	-0.18	-0.33*	-0.17	-0.12
	조기완료	0.12	0.04	0.23*	0.18
	확산	-0.17	-0.35*	-0.22*	-0.28*
위업	성취수준	0.21*	0.16	0.25*	0.29*
	모러토리움	-0.05	-0.12	-0.00	-0.05
	조기완료	0.15	0.06	0.22*	0.28*
	확산	-0.09	-0.27*	-0.16	-0.17

* $p < .05$ n=169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확산요인은 친밀성 요인들(개방성, 자율성, 근접성, 협동성)과 통계적으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감 지위의 직업영역에서 성취수준 요인은 친밀성 지위의 개방성 요인과 협동성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기완료 요인은 개방성 요인과 협동성 요인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확산요인은 자율성 요인과 협동성 요인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상관분석한 결과를 좀 더 단순화시키고, 심화분석하기 위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군과 도출된 정준함수들 간의 상관을 표5에 제시하였다.

표5에서 정준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준함수 Root(I)과 Root(II)만이 $p < .01$ 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그래서 총 4개의 함수 중 2개만이 유의한 함수이다.

Root(I)은 정준상관계수가 $R_c = .45$ 이고 전체 변량의 26%(Eigenvalue=0.26)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에서 모러토리움 요인(-0.34)과 확산요인(-0.53)은 부적관계를 나타내주고 친밀성 지위의 자율성 요인(0.63)과 협동성 요인(0.38)은 정적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에서 확산요인(정준적재치=-0.53)이 낮을수록 친밀성 지위의 자율성 요인(정준적재치=0.63)이 증가되어지는 체계적 관련성을 나타낸다.

Root(II)는 정준상관계수가 $P_c = .37$ 이고 전체 변량의 15%(Eigenvalue=0.15)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에서 성취수준 요인(0.32), 모러토리움(0.49)과 직업영역에서 조기

표 5. 남자의 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 간의 정준상관분석

		정준함수	Root(I)	Root(II)	Root(III)	Root(IV)	
정 체 감	가 치	성취수준	0.13	0.32*	-0.97	-0.25	
		모러토리움	-0.34*	0.49*	0.35	0.11	
		조기완료	-0.07	0.24	-0.15	0.85	
		확산	-0.53*	-0.01	-0.62	0.07	
지 위	직 업	성취수준	0.25	-0.23	0.05	-0.52	
		모러토리움	0.00	0.18	0.03	0.55	
		조기완료	0.14	0.39*	0.66	-0.03	
		확산	-0.13	0.35*	-0.12	-0.63	
친 밀 성 지 위	개 방 성	개방성	0.20	0.33*	-0.77	-0.83	
		자율성	0.63*	-1.08	0.06	0.08	
		근접성	-0.01	0.38*	-0.56	1.39	
		협동성	0.38*	0.67*	1.03	-0.67	
Canonical Correlation			0.45	0.37	0.24	0.16	
Eigenvalue			0.26	0.15	0.06	0.02	
<i>F</i>			2.47	1.88	1.24	0.93	
<i>df</i>			32	21	12	5	
Probability			0.001	0.01	0.24	0.45	

* 정준함수(Root)와 변수들간의 비교적 높은 상관을 표시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임

완료 요인(0.39), 확산요인(0.35)과는 정적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리고 친밀성 지위의 개방성 요인(0.33)과 협동성 요인(0.67)과는 정적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에서 모러토리움 요인(정준적재치=0.49)이 증가할수록 친밀성 지위의 협동성 요인(정준적재치=0.67)이 증가하는 체계적 정적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다.

3) 여자분석

전체대상자중 여자만을 추출하여 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한 것이 표6과 같다.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확산 요인은 친밀성 수준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상관분석한 결과를 좀 더 단순화시키고, 심화분석하기 위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군과 도출된 정준함수들 간의 상관을 표7에 제시하였다.

표7에서 정준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준함수 Root(I)에서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1개의 함수만 도출되었다.

Root(I)은 정준상관계수가 $R_c = .54$ 이고 전체 변량의 42%(Eigenvalue=0.42)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에서 성취수준 요

표 6. 여자에서의 정체감과 친밀성의 상관계수

정체감		친밀성			
		개방성	자율성	근접성	협동성
가치	성취수준	0.41*	0.33*	0.33*	0.30*
	모러토리움	-0.19	-0.33*	-0.15	-0.25*
	조기완료	0.21*	0.19	0.39*	0.33*
	확산	-0.31*	-0.37*	-0.29*	-0.34*
직업	성취수준	0.18	0.19	0.10	0.12
	모러토리움	-0.00	-0.01	-0.08	-0.07
	조기완료	0.28*	0.18	0.25*	0.23*
	확산	-0.21	-0.35*	-0.21*	-0.26*

* $p < .05$ n=130

표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체감 지위의 8개 하위요인들과 친밀성 지위의 4개 하위요인 간에는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에서 성취수준은 친밀성 지위의 하위 요인들(개별성, 자율성, 근접성, 협동성)과 통계적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러토리움 요인은 자율성 요인과 협동성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기완료 요인은 근접성 요인과 협동성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정

인(0.42)과 조기완료 요인(0.37)은 정적관계를 나타내주고, 직업영역의 성취수준 요인(-0.32)은 부적으로 상관되어 있음을 나타내준다. 친밀성 지위의 개방성 요인(0.32)과 자율성 요인(0.30)은 정적으로 상관되어 있음을 나타내준다. 따라서 정체감 지위의 가치영역에서 성취수준(정준적재치=0.42)이 증가할수록 친밀성 지위의 개방성 요인(0.32)이 증가되는 체계적 정적관련성을 나타낸다.

표 7. 여자를 대상으로 한 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 간의 정준상관분석

		정준합수	Root(I)	Root(II)	Root(III)	Root(IV)	
정체감 지위	가치	성취수준	0.42	-0.14	0.75	-0.48	
		모러토리움	-0.27	0.35	0.27	-0.50	
		조기완료	0.37*	0.78	-0.50	-0.29	
		확산	-0.22	0.04	0.12	-0.63	
지위	직업	성취수준	-0.32*	-0.44	0.08	-0.13	
		모러토리움	0.12	-0.24	-0.01	-0.43	
		조기완료	0.25	0.17	0.43	0.56	
		확산	-0.27	0.17	0.52	0.79	
친밀성 성지위		개방성	0.32*	-0.33	1.21	0.32	
		자율성	0.30*	-1.12	-0.60	-0.77	
		근접성	0.23	1.30	0.01	-1.24	
		협동성	0.29	0.10	-0.54	1.70	
Canonical Correlation		0.54	0.40	0.25	0.09		
Eigenvalue		0.42	0.19	0.06	0.00		
<i>F</i>		2.47	1.52	0.76	0.22		
<i>df</i>		32	21	12	5		
Probability		0.001	0.06	0.68	0.95		

* 정준합수(Root)와 변수들간의 비교적 높은 상관을 표시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임

논 의

1. 정체감 지위분포

정체감 지위분포의 하위요인들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결과는 정체감 형성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Erikson의 연구(1968)와 Adams 등(1979)의 연구, 그리고 박아청(1984)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Neuver과 Genthber(1977)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 즉 성취군과 모러토리움군이 남녀 모두 다른 집단보다 우수하다는 결과와 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친밀성의 지위와의 관계를 결정하기 위한 면접을 통해 정체감을 측정한 Orlofsky 등(1973)의 연구결과와는 일치를 보이고 있다.

정체감과 친밀성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Hodgson과 Fisher(1979)의 50명의 남여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성은 직업, 정치, 종교에서 여성은 성영역에서 정체감 성취형과 모러토리움형이 유의하게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정체감의 하위영역에 따라 남여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체감 하위영역에서 남여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취급한 하위영역이 오늘날 성별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가치관과 직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하위영역에서는 성별차이를 검토하는 것이 연구의 의미가 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래 수행된 이 방면의 많은 연구들이 남자 혹은 여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서도 추측해볼 수 있다.

2. 친밀성 지위

앞에서 본 정체감 지위분포의 하위요인들에서 본 결과와 비슷하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정체감 지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친밀성 지위에서 여성집단의 평균($M = 72.67$, $sd = 7.82$)이 남성집단의 평균($M = 70.25$, $sd = 9.23$)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 간의 관련성

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의 각 요인들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남자대학생 53명을 대상으로 정체감과 친밀성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Orolofsky, Marcia 및 Lesser(1973)의 공동연구의 결과와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정체감 성취수준에 있는 집단과 소외적 성취수준에 있는 집단이 친밀성 지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친밀성 획득은 정체감 성취와 관련이 깊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결과를 Tesch(1980)도 보고한 바 있다. 즉, 그는 21세에서 31세사이의 남여 각 48명, 40명을 대상으로 Marcia와 Orlofsky의 면접법을 활용하여 각 지위를 조사한 결과, '친밀성이 높은 남성은 종교, 정치, 성역할의 영역에서 정체감 지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여성에서는 정치 영역에서만 정체감과 친밀성이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남여 4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한 Kacergius와 Adams(1980)는 정체감 성취형이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친밀성 형성이 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남여간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체감 지위수준과 친밀성 지위간의 관련성에 대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거의 일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하위영역의 요인들과의 관계는 연구에 따라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체감 지위의 직업영역에서 성취수준 요인은 친밀성 지위의 개방성 요인과 협동성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기완료 요인은 개방성 요인, 근접성 요인 및 협동성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확산 요인은 자율성 요인과 협동성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정체감 지위가 높은 집단은 친밀성 특히 개방성과 협동성 요인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자아를 확립한 사람일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남에게 노출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정체감이 확산되고 있는 집단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자율적이며 협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한다. 역시 이러한 결과는 Tesch와 Whitbourne(1982), Schiedel과 Marcia(1985), Orlofsky 등(199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전체 대상자 중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나타난 결과는 남여가 차이없이 성취수준이 높을 수록 친밀성의 지위도 높아진다고 결론을 내린 선행연구(Douvan & Adelson, 1966 ; Schiedel & Marcia, 1985)의 결과를 지지한다.

정체감 지위의 직업영역에서 조기완료 요인은 친밀성 지위의 근접성과 협동성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확산 요인은 자율성 요인, 근접성 요인 및 협동성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은 남녀 청년을 대상으로 정체감과 친밀성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6개의 논문 가운데 5개(Fitch & Adams, 1983 ; Hodgson & Fischer, 1979 ; Schiedel & Marcia, 1985 ; Tes-

ch & Whitbourne, 1982 ; Zampich, 198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5개의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친밀성 수준이 높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이점을 검토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앞으로 친밀성의 하위요인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은 성별관계없이 정체감 지위가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일수록 친밀성의 지위도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특히, 친밀성 요인 가운데서 개방성 요인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와 반면에 정체감의 지위가 확산이라든가 조기완료의 경우에는 친밀성의 지위가 낮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는 곧, 정체감 위기의 해결이 성숙한 친밀성을 갖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의 경우, 정체감의 확산이 요인이 낮을수록 친밀성 지위의 자율성 요인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결국은 앞서 내린 결론과 일치된다. 정체감 확산이 낮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취 수준의 증가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러토리움 요인이 증가할수록 친밀성 지위의 협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정체감이 확고하지 못하나 타인과의 협조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에는 정체감 지위의 성취수준 요인이 증가할수록 친밀성 지위의 자율성 요인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 여성은 개방성 요인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남여의 차이는 아마도 동일한 친밀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위요인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 진다. Orolofsky(1993)이 사회학자 Parsons, Baltes 및 Bem의 연구를 인용하여 지적하고 있듯이 남자는 도구적 기술에 강조를 두는 반면에 여자는 표현적인 사회적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여자는 친밀성 능력이 남자에 비해 강하며(Douvan &

Adelsen, 1966), 여성의 경우에는 친밀성의 발달이 정체감의 발달을 선도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참 고 문 헌

- 류재동(1990). *미혼여성을 위한 친밀성 형성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1984).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 : 정민사.
- 박아청(1992). *아이덴티티의 세계*. 서울 : 교육과학사.
- 서봉연(1988). *한국청년들의 Identity Crisis에 관한 분석적 연구. 심리학의 연구문제*, 3호, 129-160. 서울대학교.
- 송설희(1994). *가족유형과 지각된 부모의 수용 - 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혜(1991). *자아정체감과 친밀성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ams, G. R. & Shea, J. A. (1979). Toward the Development of an objective assessment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 223-237.
- Douvan, E. & Adelson, J. (1966).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 : Wiley.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W. W. Norton.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 W. W. Norton.
- Fitch, S. A. & Adams, G. R. (1983). Ego identity and intimacy status : Replication and exten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9, 839-845.
- Hodgson, J. W. & Fischer, J. L. (1979). Sex differences in identity and intimacy development in college youth. *Journal of Youth*

- and Adolescence, 8, 37-50.
- Josselson, R. L. (1973). Identity formation in college women : Psychodynamic aspects of identity formation in college wom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 145-167.
- Kacerguis, M. A. & Adams, G. R. (1980). Erikson stage resolution : The relationship between identity and intima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 117-126.
- Marcia, J. E. et al. (1993). *Ego Identity*. New York : Springer-Verlag.
- Neuber, K. A. & Gentner, R. W. (1977). The relationship between ego identity, personal responsibility, and facilitative communication. *Journal of Psychology*, 95, 45-49.
- Orlofsky, J. L. (1978). Identity formation, Achievement, and fear of success in college men and wom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 49-62.
- Orlofsky, J. L. (1993). Intimacy Status : Theory and Research. In J. E. Marcia et al. (Eds). *Ego Identity*. New York : Springer-verlag, 111-133.
- Orlofsky, J. L., Marcia, J. E., & Lesser, I. M. (1973). Ego identity status and the intimacy versus isolation crisis of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 211-219.
- Rosenthal, D. A., Cureny, R. M., & Moore, S. M. (1981). From trust to intimacy : A new inventory for examining Erikson's stage of Psycho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6, 525-537.
- Schiedel, D. G. & Marcia, J. E. (1985). Ego identity, intimacy, sex role orientation, an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49-160.
- Tesch, S. A. (1980). *Intimacy and identity development in early adult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Rochester, Rochester, NY.
- Tesch, S. A. & Whitbourne, S. K. (1982). Intimacy and identity status in young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1041-1051.
- Whitbourne, S. K., Jelsma, B. M. & Waterman, A. S. (1982). An Eriksonian measure of personality development in college students : A reexamination of constantinople's data and a partial repli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73-378.
- Zempich, C. L. (1981). *Ego identity status, intimacy status, and self-disclosure in adult men and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IL.

A Canonical Correlation Aanalysis Between Identity and Intimacy in College Students

A-Chung Park

Department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grasp correlation in the status formula between identity and intimacy, based on sexual differences through the method of canonical correlation ananlysis. For this research, we surveyed at random one hundred and fifty male and female collegians whose ages range in early adulthood. In comparative discussion of the earned results with the precedent research results, we can conclude as follows: 1. The more the factor of the diffusion of identity status in the value area is high, the more the autonomy of intimacy status is low. 2. The more the factor of the foreclose in the value area is high, the more the autonomy of intimacy status is low. 3. The more the factor of the achievement of identity in the value area is high, the more the openness of intimacy status is high. 4. The more the factor of the diffusion of identity status in the value area is low, the more autonomy of intimacy status is high. 5. The more the factor of the moratorium of identity in value area is high, the more the cooperation of intimacy status is high. 6. The more the factor of achievement of identity in value area is high, the more the openness of intimacy status is high. 5. The more the factor of the moratorium of identity in value area is high, the more the cooperation of intimacy status is high. 6. The more the factor of achievement of identity in value area is high, the more the openness of intimacy status is high.